



3면

문 대통령, 민주조선의원들에 '단합' 강조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음 4월 24일)

제27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4개사업 포함돼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송하진 도지사,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과 면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조기 착공 지원도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신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등 전북지역 4개 사업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시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막바지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 지사의 이번 국토부장관 면담은 지난 5월 6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이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지난 4월부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및 실무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사진 오른쪽)는 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지역 4개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사진은 송 지사가 노 장관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낭만 가득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3~6일 · 11~13일 7일간 개최... 29개국 95편 상영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3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박철민, 김해나 배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에는 황인홍 조직위원장(무주군수)과 유기하 집행위원장,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과 의원들, 황의탁 도의원 등 내빈이 자리했으며 무주산골영화제의 넥스트액터 안재홍 배우와 박관수 영화제작자, 장건재 감독, 이나라 평론가, 이도훈 평론가 등 산골영화제 심사위원이 함께 했다. 이날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7일동안(3~6일, 11~13일)의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선언과 함께 개막작인 '달이지는 밤' 소개, 그리고 라이브연주가 있는 영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달이지는 밤'의 라이브 연주는 모그와 이민휘 음악감독이 베이스 기타, 테너블, 더블베이스, 퍼커션, 피아노, 첼로 등의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춰 원작의 감동을 배가

시켰다. 2편의 단편영화로 이뤄진 유니버스 영화인 동시에 한 편의 장편영화인 '달이지는 밤'은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의 개성 있는 감독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시작한 '무주장편영화제자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 무주에서 무주군민의 참여로 완성한 장편영화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 소지자에 한해서만 영화 상영 및 행사 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객 모두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입장대기 절차를 거친 후 입장할 수 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산골영화관과 무주청소년수련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 실내 3곳과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대입회장 등 야외 2곳에서 진행되며 29개국 9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중앙부처-특구사업자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결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 지난달 최고등급 인정 '친환경자동차 특구' 방문... LNG 상용차 2대 등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내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중앙부처와 특구 사업자들이 모여 소통의 장을 가졌다. 전북도는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이 지난 5월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추진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는 현재 실증 중인 450L 내압용기를 장착한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대표 차량 4대의 운행 실증을 했다. 또 암물청소차와 미스트트럭을 주행로에서 운행하고, 차량판제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주행거리, 주행능력 사양 등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선보였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제작 차량(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

식 세탁차, 청소차) 및 국산화 부품 소개, 안전한 주행 실증을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령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난 2019년에 지정한 1차 특구 7개, 2차 특구 7개 등 총 14개 특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목표달성도, 사후관리 노력, 운영성과 등의 운영성과 평가를 했다. 종합평가 결과 전북을 비롯해, 경북, 대구가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차 특구 7개 중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낸 전북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의 성과를 받았다. 평가단은 연구·지원기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새로운 기술개발과 지원을, 특구사업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한 실증으로 지연 없는 사업추진을,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



해 부처 대응 및 업무 가능 여건 마련 등 틈나비처럼 맞물려진 노력의 결과라는 호평을 했다. 도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미래형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에는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매진하고 있다. 도는 향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30대를 추가 제작·실

증을 추진하고, 이동식 LNG 충전소 1기도 추가 설치해 안전한 실증과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실증이 종료되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규제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현장 시찰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고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수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우수특구로 인정 받은 것은 전북도, 기관 특구사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